

페미니즘 영화에서 국제관계론 근거 찾기

전명길*

◁ 목차 ▷

- I. 서론
- II. 페미니즘 국제관계론의 담론과 과제
- III. <위험한 정사>: 사랑과 공포 사이의 페미니즘
- IV. <원초적 본능>: 삶과 죽음 사이 연결된 페미니즘
- V. 결론

* 광주여자대학교 교양과정부 조교수

<Abstract>

Discovering the Evidence of the International Relations in the Feminist Films

Jeon, Myunggil

Feminist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hit its stride in the late 1980s and the 1990s, when the United States, as the only superpower left after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in 1991, returned to its conservatism, meaning a male-dominated society against radical feminism. Interestingly, the erotic thriller films, such as *Basic Interest* (1992), *The Last Seduction* (1994), and *Bound* (1996), show feminist aspects that women virtually take control of men with their sexual attraction or retaliate against their assailants ruthlessly. This paper discovers the evidence of feminist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in the 90s erotic thrillers, dating back to the originator *Fatal Attraction* (1987). The second chapter explains the definition, history, and problems of the feminist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in the light of the advanced research. The third observes the details of feminism through the story of *Fatal Attraction*, and the fourth analyzes the attributes of feminism shown in the erotic thrillers in the 1990s. The fifth arranges what the feminist theory says and lacks in the 21st century and refers to the evidential facts in the kinds of feminist films. Through the analysis, the feminist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based on what women experience, reflects the gender-related

inequality and the positivistic aspects of the male centered practices in the international politics, and the thriller films bear the marks in abundance, an international cultural phenomenon.

Key Words

feminist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erotic thriller films, *Fatal Attraction*, *Basic Interest*, gender-related inequality

I. 서론

국제관계론에서 페미니즘은 힘의 지배에 근거한 리얼리즘과 국가 간의 의사소통을 강조하는 이상주의 등 기존에 합리주의적인 것으로 여겨진 사고방식에 공통되게 포함된 남성 중심의 사고방식을 비판한다. 페미니즘 국제관계론은 단순히 각 정부 수반 등 각료에 여성이 몇 명 있는지보다 그동안 기정사실로 여겨왔던 젠더 불평등개념과 그것에 기초한 제도의 원리와 효과를 전반적으로 부정한다는 점에서 한 국가나 기구의 규범과 정체성이 국제사회의 복합적이고 상대적인 역학관계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 가능한 반성주의(reflectivism)의 한 부분이며, 구성주의, 후기구조주의, 후기 식민주의와 같이 포스트모더니즘적 양상을 가지고 있다.

신시아 엔로(Enloe, 1989)는 그동안 대형농장 일꾼, 수완이 좋은 아내, 기지춘 위안부 등으로 존재해온 여성의 시각으로 볼 때, 현재의 국제정치가 지나치게 젠더화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페미니즘 국제관계론에 대하여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이 분야의 연구자들은 주로 세계은행과 세계무역기구 등 국제 경제영역에 영향을 주었는데, 그 활동기를 네 시기로 분류하면 제1기는 19세기 미국의 여성 선거권 운동에서 여성 참정권의 토대를 닦은 미국 수정 헌법 제19조가 통과되었던 1920년까지의 시기이고, 제2기는 법과 사회적인 평등을 보장받기 위한 여성해방운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1960년대이다. 그리고, 제3기는 여성의 개성과 다양성을 강조했던 1990년대이고, 제4기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 현상을 미디어에 고발하는 소위 미투 운동의 시기로서 2012년부터 현재까지를 말하고 있다(Dorsey, 2018).

그런데, 이 중 제3기와 중복된 시기인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에 성욕과 죽음이 교차하는 에로틱 스릴러 영화들이 많이 생산되었는데, 그 주제는 섹스, 탐욕, 살인, 유혹, 육체, 정열, 기만, 고통, 냉혹함이었고, <위험한 정사>(Fatal Attraction, 1987)가 그 효시이다. 이 부류 영화의 예는 <사랑의 파도>(Sea of Love, 1989),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마라>(Consenting Adults, 1992), <최종 분석>(Final Analysis, 1992), <육체의 증거>(Body of Evidence, 1993), <컬러 오브 나이트>(Color of Night, 1994), <스트레인저>(Never Talk to Strangers, 1995), <아이즈 와이드 섯>(Eyes Wide Shut, 1999)로 열거될 수 있다. 특히, <원초적 본능>(Basic Instinct, 1992)은 <위험한 정사>에서의 페미니즘적 문제의식을 계승하여 두 작품을 패러디한 <보험결린 사나이>(Fatal Instinct, 1993)는 소위 에로틱 스릴러라는 새로운 장르를 형성하게 했다. 선정성과 공포를 특징으로 한 저예산 포르노그래피 영상이 파생되기도 했지만, 에로틱 스릴러 영화는 이와 다르게 개봉관에서 정상적으로 상영된 작품으로서 1980년대 말 느와르, 미스터리, 공포, 멜로드라마 등의 다양한 형태로 당시 사회에서 성역할이 급격하게 변모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페미니즘 시각이 기존의 국제관계론에 본격적으로 추가되는 시점은 에로틱 스릴러 영화의 유행 시기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 1991년 소련의 붕괴부터 2008년 미국 금융위기 이후 중국경제가 급부상하기 전까지 탈냉전 분위기에 편승하여 페미니스트 연구자들은 젠더 불평등 해소를 종전의 전쟁과 평화 이슈만큼이나 중요한 문제로 논의하기를 원했다. 하지만, 로버트 코헤인(Keohane, 1998)이 데이터와 과학적인 해법으로 남성 중심의 국제관계에 대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를 묻자, 산드라 하딩(Sandra Harding), 이블린 폭스 켈러(Evelyn Fox Keller), 캐롤린 머천트(Carolyn Merchant), 사라 러덕

(Sarah Ruddick), 캐롤 길티건(Carol Giltigan) 등 제1세대 페미니스트 국제관계론자들은 그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그 대신 논의의 범위를 좁혀 가려고 노력했다(Zalewski, 1995).

아마도 젠더 불평등 현상은 하나의 사상이기 전에 국제적인 문화 현상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그 경향을 일일이 열거하기 어렵거나, 오랜 세월 동안 관행화되어 특별하게 적시한다는 것이 어색했을 것이다. 1980년대 말에서 1990년대까지의 에로틱 스릴러 작품은 가장 대중적인 매체인 영화로서 과감한 성적 표현을 통해 젠더 갈등문제를 체감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점을 감안하여 이 논문은 이 장르의 영화들을 분석하여 젠더 불평등 현상의 일면을 고찰하고, 그것을 페미니즘 국제관계론에 적용한다. 제2장은 페미니즘 국제관계론의 정의와 역사 그리고 과제를 선행연구에 비추어 설명한다. 그리고 제3장은 에로틱 스릴러 영화의 효시 격인 <위험한 정사>의 줄거리를 따라 1980년대 말 페미니즘 문화의 단면을 고찰하고, 제4장은 <원초적 본능>을 비롯한 이후 1990년대 에로틱 스릴러 영화들의 페미니즘 속성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은 이 영화에 나타난 페미니즘 요소와 논의되었던 젠더 불평등문제를 국제관계론에 비추어 정리한다.

II. 페미니즘 국제관계론 담론과 과제

페미니즘에 대한 정확한 정의, 국제관계에서 실제 변수로 활용되었는지의 여부, 젠더 변수를 앞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그전부터 있었지만, 1980년대에 본격화되었다. 이 사고가 국제정치학적 관점에서 고전적 관계론에 대해 반성적으로 작용했지만, 남성 중심의 사고로 점철된 그동안의 이론에서 젠더 불평등문제를 포괄적으로 논하지는 못하고, 단지 개별적인 수준에서 도출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는 주로 페미니즘의 정의와 범위가 불명확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로서 단순히 남성 중심주의를 거울삼아 상호 비교하기보다 차라리 성 역할 자체를 부인하는 방법이 지금에서 더 현실적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남성성과 여성성은 과거 집안과 집 밖의 업무를 연상시키고 심지어 공적과 사적, 객관과 주관, 주체와 타자, 이성과 감성, 자율성과 관계성, 문화·문명과 자연, 질서와 무질서, 전쟁과 평화의 이분법적인 관계로 이해되었지만, 21세기 취업이나 학업은 물론 심지어 혼인 관계에 이르기까지 양성 간 차별이 명목상 금지됨에 따라 페미니즘은 이제 실천적 담론의 장에 들어간 것으로 보아야 한다.

페미니즘의 연구대상은 여성이어야 하고, 여성의 경험에 인식도대를 두며, 여성의 평등을 실현하고, 남성성을 강조한 국제관계에 대해서 차별적인 부분을 정의롭지 않은 것으로 지적한다. 페미니즘 사고의 핵심요소로서 젠더 개념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논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동질성을 확보해야 하고, 오랫동안 젠더화된 세계에서 이미 우리에게 익숙해진 사실을 하나씩 재고찰해야 하는 고단한 과제를 여전히 남기고 있다. 젠더 불평등과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론이 번거롭고, 추상적으로 보일 수 있는 이 단계가 선행되어야 젠더 불평등 문제는 효율적이고 종국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페미니즘과 국제관계학을 연결한 의미에서 국내 유력한 선행연구로서 황영주(2004)는 이를 안보와 평화문제까지 확대하고 있다. 같은 연구에 따르면 권력과 국가를 매개로 한 국제정치는 17세기 근대국가체제에서 비롯한 강한 남성성에 의해 윤색되어있으며, 그 와중에 여성은 타자화되었다는 것이다(황영주, 2004: 5). 기성적인 국제관계론의 과학적 방법론은 남성의 전형적인 경험에만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성차별을 내재할 수밖에 없고, 여성은 남성이 만들어낸 세계구조를 그대로 수용하게 되었는데, 객관적 진실, 인성과 논증, 경험주의, 명제적인 테스트, 대상과 관찰자를 구분한 남성적인 실증주의를 후기 실증주의 즉 객관적 진실의 허구, 관찰자와 대상의 구별 없음, 연구자보다 시간, 장소, 사회적 맥락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고방식으로 전환해야 함이 옳다는 것이다. 더하여 황

영주(2004)는 새로운 평화창조자로서 여성이 남성에게 의해 초래된 전쟁의 희생자라는 운명을 변화해 빈곤·기아·억압의 구조적인 폭력을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지배국면과 동일시하여 종래 영웅적인 남성성으로 대변한 군사력에 안보를 일임했던 전례를 반드시 국가 차원 이외에 성차별과 폭력 그리고 인신매매 등 개인적인 사안도 국제관계에서 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어서 황영주(2013)는 페미니즘 국제관계론을 안보연구의 한 영역으로 삼아 그 기원과 주장을 고찰하고 있는데, 1988년에 발간된 영국의 『밀레니엄』 특별호에서 여성과 국제정치의 관계가 논했던 것이 그것을 국제정치학의 분과학문으로 등장시킨 계기가 되었고, 냉전의 종결과 세계화의 확산이라는 국제정치 현실변화에 따라 전통적인 국제관계론에 대한 비판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황영주(2013: 29)는 페미니즘 국제관계론 제1세대가 전통적인 국제정치관에 대한 비판을 가했고, 이어서 제2세대가 그 현상을 경험적으로 분석했다고 말한다. 이렇듯이 페미니즘 국제관계론은 국제정치 이론을 다양화한 시도이고, 앞서 본 것처럼 실증주의와 후기 실증주의 간 논쟁의 중요한 주제가 되었으며, 그랜트와 뉴랜드(Grant and Newland, 1991)가 이 분야 최초 서적을 발간하였고, 피터슨(1992)이 편집한 책에서 국가체제를 비판하고, 국가의 무성적 존재를 부정하는 등 기존의 국제정치학 개념을 페미니즘 시각으로 재해석하고 있다. 그리고, 황영주(2013: 32)가 소개하듯이 티크너(1992)는 여성의 경험이 기존의 국제관계론에 포함될 때 잘못된 부분을 비로소 올바른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 “안보를 물리적, 구조적, 생태학적 폭력의 제거라는 측면에서 정의하였기에”(티크너, 2007: 42) 그동안의 페미니즘 이론과 양립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페미니즘 국제관계론의 역사 중 1919년 제1차 세계대전 전쟁과 같은 비극을 예방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젠더 불평등 문제가 비롯되었다. 네오리얼리즘이 실증주의적 방법론을 개발하고, 맑시즘이 경제측면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좀 더 급진적인 정책을 선보인 이후 페미니즘은 그것을 변형한 견해와 제도를 통해 지금까지 존재해왔다. 그 와중에 레

베카 그랜트(Rebecca Grant), 캐슬린 뉴랜드(Kathleen Newland), 앤 티크너(Ann Tickner) 등 페미니즘 학자들은 젠더 개념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더하여 위 사고들을 개정하려고 노력했는데, 그들은 페미니즘 국제관계론을 활용해서 국가 간 평화로운 교류를 증진하고, 세계를 안정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그중 비뚤어진 젠더 불평등 개념을 일신하는 것을 우선으로 삼았다. 줄라 크리스테바(Julla Christeva), 제인 플랙스(Jane Flax), 가야트리 스피박(Gayatri Spivak) 등 후기구조주의 페미니스트들도 역시 절대주의에 반대한 상대주의의 의미구성을 진행했다.

그랜트와 뉴랜드 그리고 티크너는 여성의 발언권이 각국의 최고정책결정권에서 벗어나 있었던 이유를 국제사회의 위정자들이 남성의 역할을 군사적 행위와 국제관계 등 시민권 행사로 간주한 반면, 여성은 사적인 영역에 남아 단지 이세 양육을 전담해야 했던 방법으로 분리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Swerdlow, 1995: 161). 다만, 그들이 그동안의 국제관계론이 권력에 기초한 국가안보와 갈등 그리고 경쟁에 지나친 관심을 보였지만, 구체적으로 그 대안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에 비해 엔로(Enloe, 1989)는 종래 국제관계론에서 여성은 상징, 소비자, 근로자, 정서적 위안을 주는 사람으로 여겨졌다고 주장한다. 즉 여성이 참여하지 않은 부분은 국가정책과 국가보안 그리고 거대경제 담론을 포함하는 고급 단계로서 종래 위정자들은 젠더 문제를 여기에 포함시키지 않으려고 했다.

하지만, 캐롤 밀러(Miller, 1991)는 1942년 영국 외교관 해롤드 니콜슨(Harold Nicholson)이 열정(zeal), 동정심(sympathy), 충동(intuition)을 여성성으로 칭하되, 확고한 통제가 없다면 위협해질 수 있다고 말함으로써 여성성을 비책무성과 일치시킨 듯한 발언을 하였다. 이 말은 공정하고, 성급하지는 않지만, 남성에게 비인간화된 정책 마련을 요구하지만, 여성을 제외해버린 것과 유사한 결과를 낳을 것이다(Swerdlow, 1995: 162). 이뿐만 아니라, 코헤인(Keohane, 1998)은 모르간다우(Morganthau)가 권력을 남성 간 정신과 행위에 대한 통제로 명명하여 여성들을 제외한 것을 조잡한 정의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서 티크너(Tickner, 1992)는 앞의 정의가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가 권력을 함께 구성할 수 있거나, 같은 뜻을 가진 타인과 연결하여 공동 노력하는 것을 권력이라고 규정한 것을 인용하였다. 또한, 티크너(Tickner, 1992)는 여성성에 관하여 연결성과 경우의 수를 강조하고, 페미니즘 시각에서 젠더 위계질서가 진정한 의미의 안보에 방해를 준다고 주장한다. 그 대신 그녀는 군사적, 경제적, 환경적 보안을 상호의존적으로 연결짓는 것이 제로섬 게임이 아닌 상호혜택을 보장한다고 주장한다(Swerdlow, 1995: 162). 또한, 그랜트와 뉴랜드 그리고 티크너는 여성의 경험과 인식을 무시한 경우에 제3세계의 개발계획을 개념화하는 것을 제한하고 약화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의견을 더한다.

하지만, 여전히 페미니즘 국제관계론은 실증주의 국제정치학 담론을 비판하면서도 남성 중심의 사고를 적시하지 못함으로써 티크너가 강조한 여성적 경험을 접목할 방법을 명백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이 주장이 본격화된 시기에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서 미국 할리우드에 여성의 성적 매력을 공포 분위기로 무기화한 스릴러 작품이 생산되어 그 역할을 대신했음은 주목할 만하다.

Ⅲ. <위험한 정사>: 사랑과 공포 사이의 페미니즘

<위험한 정사>는 주인공 댄 갤러거(Dan Gallagher)가 독신녀 알렉산드라 포리스트(Alexandra Forrest, 이하 알렉스)와 행한 불륜 행각 때문에 한 단란한 가정의 행복과 안전이 위험한 상태에 이르게 됨에 따라 겉으로 볼 때 일부일처제에서 가장의 성도덕을 강조한 듯한 인상을 준다. 실제로 원래 제목 '치명적인 매력'이 한국인 관객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변경되었듯이 우리나라에서도 이 작품은 공포 장면 이외에 성적인 차원에서 굳이 페미니즘으로 해석하는 경우는 아니었다고 본다. 이 영화에 나

타난 주제와 메시지를 국제관계론에 적용하면, 우연한 위기에 부딪혔다가 정상화된 덴과 베스(Beth)의 혼인관계가 1990년대 미국과 동맹을 맺

은 여러 나라의 경우로 연상되지만, 아드리안 라인(Adrian Lyne) 감독이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한 바가 있지 않다. 단지 이 영화의 스크린 작가 제임스 디어든(James Dearden)이 유부남을 사랑스러운 존재로, 결혼하지 않은 여성은 주의해야 할 인물로 그렸다고 말했을 정도에 불과하다(Faludi, 1992: 119). 평론가 로빈 우드(Robin Wood)는 덴의 아내를 악마적 역할로 연기한 직업여성 알렉스와 비교되는 착한 전업주부로 그리고 있다고 말한다(Wood, 1986: 94).

<위험한 정사>가 처음 소개되었을 때는 단순한 할리우드 공포영화로 알려졌다며, 덴이 행복한 가족생활을 영위한 듯하지만, 이면에 남아있던 성적 불만과 심리적 불안으로 비교적 쉽게 불륜을 저지르게 되지만, 예기치 않게 상대 여성이 관계 지속을 원하는 바람에 단란한 가정의 행복이 무너진다는 간단한 드라마로 이해되었을 뿐이었다. 불륜 소재 영화 특유의 역동성과 긴장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갈수록 점점 강해지는 알렉스의 편집증에서 비롯한 공포감이 이 부류 영화의 전형적인 모습을 고수하고 있다. 그리고, 관객의 상당수가 아직도 페미니즘보다 기존 가부장제가족윤리를 선호하는 까닭에 두 상반된 여성 등장인물인 베스와 알렉스에 대한 선과 악의 평가는 거의 동일했다. 영화 이론가 메인(Mayne, 1990: 41)은 이 영화가 애매함을 표현하거나 알 수 없는 그 무엇을 등장인물의 행위, 징후로만 표현하고 있다고 비평한다.

하지만, 이 영화가 창작 의도와 거의 무관하게 1990년대 에로틱 스틸러 작품들에서 남성의 성적 환상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그 결과 여성이 양자 간 운명의 선택권을 선점하는 내용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모습을 주요줄거리의 순서로 고찰하기로 한다. 우선, 덴과 알렉스의 불건전한 만남은 마치 운명처럼 시작된다. 베스가 딸 엘렌(Elen)을 데리고 시골에서 이들을 보내는 동안, 덴과 알렉스는 주말 회사모임에서 만나 이전에 한 번 느꼈던 호감을 다시 나눈 뒤 때마침 내린 폭우 속에

덴의 우산이 퍼지지 않아 알렉스가 그에게 우산을 씌워주고, 덴이 잠시 비를 피해 실내 장소로 들어갈 것을 제의하고 저녁 식사까지 하게 된다. 이 자리에서 알렉스는 “당신은 이 밤에 자유롭지요, 분명히. 우리는 어른 이니까”라고 말하며 도발적인 추파를 던지고, 두 사람은 알렉스의 집과 엘리베이터에서 과격한 불륜을 행한다.

그런데, 베스가 예정된 귀가 날짜가 하루 더 연장되면서 덴은 알렉스와 애정행각을 계속하는데 그는 성행위 후 육체적 희열을 표현하고, 알렉스 역시 이에 대해 흡족해한다. 그런데, 카메라는 고기 냄새가 진동한 도시 뒷골목 알렉스의 집과 설거지가 안 된 싱크대를 비추면서 베스가 새로 얻은 단아한 시골집의 모습과 대비시킴으로써 서로 다른 여성성을 암시하고 있다. 알렉스는 요조숙녀인 베스와 다르게 자기주장과 감정에 충실한 여성으로서 덴이 처자식 자랑할 때, “그런데, 여기에서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라고 따져 묻더니, 이제 돌아가야 한다는 덴의 말에 칼로 손목을 그어 못 가게 하거나, 업무와 무관하게 그의 직장을 방문하는 등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다.



<그림 2> <위험한 정사>의 장면들
출처: 구글 공개이미지 검색

알렉스는 덴의 앞에서 이성을 되찾은 듯 보이다가도 그가 그녀의 전화를 받지 않는 등 그녀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자, 그 보복의 수준은 가일층

강해져서 한밤중에 집으로 전화하거나, 그의 차에 유독성 물질을 뿌리고, 어린 엘렌의 토끼를 끓는 냄비에 넣어버린다.

알렉스는 이 영화의 처음 장면에서 보였던 뉴욕 잡지사의 편집인으로서 자신의 삶을 통제할 만큼 이성적인 여성으로 그려지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여성은 한 남자와 정상적인 혼인 관계를 형성했을 때만 행복해질 수 있고, 그녀가 의도하지 않은 임신과 양육의 의사표시 때문에 댄의 처지가 불운하게 여겨질 정도로 보인다. 마침내 댄이 베스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알렉스가 엘렌을 잠시나마 납치하는 과정에서 베스가 교통사고를 당하자, 댄은 알렉스에게 폭력을 행사한다. 이후 댄이 베스를 병원에서 데려와 아내가 윗층 욕실에서 목욕하는 동안 수심에 잠긴 사이에 알렉스는 오른손에 칼을 들고 베스가 있는 장소로 들어오더니 마치 자신의 집인 양 “너 지금 여기에서 뭐하는 거야?”라고 물으며, 베스를 가해하려고 한다. 이때 댄이 들어와 알렉스를 역사 직전으로 몰아가는데, 반격을 가하려는 그녀를 총으로 죽인 사람은 베스이다.

이상에서 알렉스가 죽음으로써 치명적인 위험인자가 사라진 셈이지만, 줄거리 진행 과정에 댄도 알렉스와 비슷한 신경증을 가지고 있을 개연성을 보여준다. 댄은 그가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 보았던 오페라 <마담 버터플라이>(*Madame Butterfly*)에서 나비부인 초초산(Chio-Chio-San)이 아들 돌로레(Dolore)를 남기고 자살하는 마지막 장면에서 심한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장면은 알렉스가 베스의 욕실에서 자신의 몸을 칼로 긁는 것을 연상시킴으로써 강한 서양에 대비해 동양을 여성화한 국제관계와 함께 결과적으로 위 작품의 무심한 남성 역할을 한 핑커튼(Pinkerton)에 의해 농락당한 여성을 상징함으로써 페미니즘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더하여 댄에 대한 알렉스의 편집증적 사랑은 그가 아마도 요조숙녀인 베스에게서 느끼지 못했던 열정을 대신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Conlon, 1996).

페미니즘 시각에서 본다면,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오히려 알렉스에게 동정심을 그리고 댄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디어든(Dearden)이 전한 바에 따르면, 이 영화의 시사회에서 관객은 결말 부분에 카타르시

스가 부족하다고 여겼고, 이 시기까지만 해도 알렉스와 같은 여성은 증오의 대상으로서 댄이 복수하기를 원했던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다 (Faludi, 1992: 122). 심지어 그는 자신의 아내가 직업여성이 아닌 까닭에 야망이 없는 상태로 그저 남편과 함께 사는 것을 행복으로 여겨서 다행이라고까지 말한다(Faludi, 1988: 49). 하지만, 시나리오 작가가 어떻게 느꼈을지라도 페미니즘 입장에서 댄이 자신의 악마적 성욕을 억눌러야 했음에도 일방적으로 여성혐오증을 보여준다는 비판이 따른다. 알렉스를 증오하는 보통의 시각과 다르게 댄은 알렉스와 우연하게 짧은 순간 불륜 행위를 행했다기보다 그녀의 야성을 이용했음에도 그것에 대해 정직하지 않은 면이 크다고 할 것이다.

알렉스가 댄과 그의 가족에게 복수한 것은 그가 쾌락을 즐기고 그녀를 임신시킨 채 버린 것에 대한 악몽으로 볼 수 있는 점도 인정해야 한다. 그녀는 “당신은 내 인생에 아무렇게나 걸어들어와 단지 당신 이외에 다른 배려함이 없이 그것을 뒤집어 놓고 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You thought you could just walk into my life and turn it upside-down without a thought for anyone but yourself)라고 비난한다. 이는 알렉스가 베스와 다르게 남근적 여성으로 역할하고 있으며, 그동안 이 부류에 대한 비평이 가부장적 환상 도구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 것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서 적어도 알렉스는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남성을 향해 남성적인 무기를 휘두른 여성으로서 무기를 누가 먼저 획득하느냐를 두고 댄과 경쟁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

<위험한 정사>는 민담과 신화에 기초한 사회 심리적 주요소를 도출하기 위해 의식적인 방법으로 논평되지 않은 무의식적, 미해결적 재료를 포함하는 전형적인 슬래쉬(slasher) 무비의 기괴한 힘과 폭력적 이미지를 특징으로 하며, 이 영화는 애매성과 사회심리 반영에서 문화적인 신화, 당대의 집약적 심리와 사회정치적 현실을 드러내는 작업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이 영화는 1990년대 페미니즘 색깔을 담은 에로틱 스릴러 영화가 연이어 생산되면서 이전에 악역으로만 해석되었던 알렉스에 대한 동정론도 힘을 얻게 되었다.

IV. <원초적 본능>: 삶과 죽음 사이 연결된 페미니즘

<위험한 정사>가 감독과 작가의 의도와 상관없이 페미니즘 요소를 인정받았던 것은 1980년대 후기 냉전이 종료되어 전쟁의 위험이 급감한 사이 미국과 국제사회에서 여성의 정치·경제적 지위가 상향적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앞서 소개한 영화 이외에 <검은 창문>(Black Widow, 1987), <폭로>(Disclosure, 1994), <워킹 걸>(Working Girl, 1988)은 성적 매력 또는 직업상 권력을 통해 남성 주인공을 지배하고 파괴하는 내용을 담게 된다. 이 작품들은 난처한 처지에 놓인 남성을 스토킹하는 여성을 포식자로 그려내어 이젠 남성의 거세 공포증과 잠재력 상실에 대한 걱정을 투영하고 있다. 더하여 남성 등장인물은 더 이상 가부장제에 기초한 기득권을 주장하지 못한 채 괴물로 변해버린 여성의 선택에 매인 처지에 놓인다.

에로틱 스릴러 영화는 단순하게 시청자들의 성욕 해소에 주안을 둔 포르노그래피와 다르게 페미니즘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1980년대와 1999년대 보수주의 레이건과 부시 대통령이 가족 중심의 문화 활동을 강조한 것과 달리 에이즈의 위협 등으로 위축된 성적 표현을 대신했다. 검열관은 대중의 보수적인 성도덕과 소비자들이 원하는 성적 환상을 절충해서 에로틱 스릴러 영화를 개봉관에서 상영할 수 있도록 A등급의 지위를 부여했다. 각 작품이 성욕을 노출하고 표현하는 정도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지만, <원초적 본능>에서 주인공 케서린이 남성 경찰의 심문 중 도발적인 노출을 통해 성적 전율감을 일으킴으로써 그녀의 사생활을 침범하는 남성들에 대해서 반격하듯이 이들 작품에 나타난 여성성은 노출증이 아닌 남성의 관음증을 오히려 비난한다(Battistini, 1992: 39; Wood, 1993: 47).

린다 하트(Hart, 1994: 133)가 “남성이 죽음을 연상하기 위해 여성성을

요구한다면, 그 불꽃 가까이 갈 수 있는 진율을 극복할 수 있는 남성성을 대변할 매개체가 있어야 한다”고 한계성을 지적하고 있지만, 페미니스트 시청자들은 에로틱 스릴러 작품의 여성 등장인물이 가진 남근성 또는 치명적인 위력을 칭찬한다. 예를 들어, <원초적 본능>에서 캐서린은 닉에게 순간적인 성적 절정이 지난 뒤 죽게 될 것을 두려워하도록 하게 한다. 즉, 에로틱 스릴러 영화에서 여성은 남성을 속박하고 규율하고 있는데, 그것은 남성의 마초적 환상이 역전된 모습을 가능한 최대로 그려내고 있기 때문이다. <원초적 본능>에서 여성 등장인물은 남성의 손을 스카프로 묶고, 얼음송곳으로 남성의 가슴을 관통하는 행위를 보여주는 데,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캐서린은 얼음송곳에 손을 뺀는 동시에 닉을 포옹하고 있어서 이후 어떠한 결말이 생길지 상상할 수 있지만, 애써 그것을 알 필요가 없는 이유는 이미 그녀가 그의 생명을 위협할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남성이 여성의 몸을 지배한 결과에 대한 반항적 효과로서 총알, 칼, 얼음송곳으로 남성의 몸을 가해한 것으로 이해된다. 실제로 <원초적 본능>에서 닉의 파트너 조오지 준자(George Dzundza)는 이전에 그가 무고한 구경꾼을 총으로 쏜 것에 대한 죄의식 때문에 죽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하여 캐서린과의 동침을 죽음과 연상시킨다.

배우 샤론 스톤(Sharon Stone)이 출연한 다음 에로틱 스릴러 작품 <실버>(Sliver, 1993)에서 감독 필립 노이스(Phillip Noyce)는 남자 주인공 볼드윈(Baldwin)으로 하여금 몰래 숨겨둔 카메라로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도록 하게 한다. 이에 대해서 그녀는 그에게 관음증에서 벗어나라고 충고함으로써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는 종래 영화의 태도와 결과에 의문점을 제시한다. <육체의 증거>(Body of Evidence, 1993)에서 여주인공 마돈나(Madonna)가 노인과 성교 끝에 사망케 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몸이 총이나 칼과 다르지 않다고 말한다. 즉, 에로틱 스릴러 영화는 성욕과 죽음이 인간의 본능을 양분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그 주도권은 철저하게 여성에게 있다. 제임스 콘론(Conlon, 1989: 153)은 이러한 작품에서 성욕의 절정이 살해로

이어지므로 양자 간 관계가 분리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또한, 에로틱 스릴러 영화는 레즈비언 애정 행위를 표현함으로써 굳이 남성을 성적 파트너로 삼지 않는다. 예를 들어, <원초적 본능>에서 캐서린은 그녀의 여자친구 록시(Roxy)와 육체관계를 갖는데, 닉이 록시에게 캐서린이 레즈비언적 상태에서 벗어났다고 자랑하려고 하지만(Tasker, 1993: 140), 록시가 닉을 차로 살해하려다 오히려 죽게 되었을 때, 캐서린은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정도로 슬퍼한다. 다른 많은 작품도 여성 동성애와 양성애의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 매번 여성이 성애의 선택권을 가진다. 반면, 크리스 홀름드(Holmlund, 1994: 36-37)는 이 작품에서 레즈비언은 남성에게 무관심한 자기 성애자로서 서로에게 어머니와 남성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한다.

실제로 닉은 처음에 남근 여성을 무장 해제하여, 자신의 지배력을 찬양하도록 하는 일종의 거세 공포증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형사로서 죄인을 식별하고 제거하기 위해 지적 능력을 사용하지만, 가부장적 질서를 회복하지 못하고, 그 대신 여자친구 베스를 죽이고, 캐서린과 동침하여 죽을 운명에 놓일 뿐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1980년대와 1990년대 페미니즘은 성 소수자 운동과 함께 젠더 불안정성과 성적 무질서에 대한 남성들의 두려움을 반영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성적으로 주도하는 남근성을 가지거나 남성성을 제거할 수 있는 여성을 영웅의 지위에 올려놓았고, 이 장르의 영화들에서 그 현상이 두드러진다.

한편, 에로틱 스릴러 영화의 여성 등장인물이 단지 남근성을 상징한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정도와 경향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남성과 여성 모두 양성적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이는 젠더 개념이 얼마나 불합리한 것인지를 알게 해준다. 예를 들어 <위험한 정사>에 등장한 댄은 베스와 알렉스 두 여성과 사랑을 나누었지만, 반드시 어느 한 편을 선호하기보다 단지 아이를 둔 가장으로서 사회적 규범을 선택할 뿐이다. 이 영화에 대한 대중의 평가는 대부분 베스와 알렉스를 선과 악으로 구분하여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고 있지만, 멜라니 클레인(Klein, 1953)의 편집-분열적 자리 이론에 따르면 한 주체에 선과 악의 요소가 공존하고 있어

서 선과 악이 교차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알렉스의 경우는 자신의 몸에 가혹하는 일이 두 번이나 있는 것을 보아 성격 장애인의 경우로 간주할 때, 알 수 없는 초기 단계에서 성격분열을 경험하고, 이어서 그것의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한 셈이 된다. 아니면, 그녀를 조현병자로 의심한 경우, 환자는 자아 내부에 있는 삶과 죽음 본능이 갈등을 빚어 치명적인 걱정과 불안감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V. 결론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 국제사회는 냉전의 종식과 세계화의 범람과 함께 사실상 유일한 초 강대국가로 남은 미국의 정치적 입장과 태도에 의존하게 되었다. 당시 레이건과 부시 공화당 정부는 이 기회에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유행했던 반전·시민권운동에 역행하는 신보수주의 정책을 시행했다. 196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초까지 전 세계에 걸쳐 계속되었던 페미니즘 지식인 운동도 미국 신보수주의의 역풍에 잠시 정체 현상을 보였다. 예를 들어 <위험한 정사>는 독신 직업여성 알렉스를 정상적인 한 가정을 파괴하는 부정적인 의미의 사이코패스로, 전업주부인 베스를 남편과 자식의 행복을 인생의 목적으로 하고 사는 착한 여성으로 표현함으로써 산업사회 성역할에 충실한 주제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 작품을 이은 <원초적 본능>을 비롯한 에로틱 스릴러 영화들이 외설 시비와 평론가들의 악평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초 세계 영화계의 한 인기 장르가 되었다. 그런데, 그 내용에 있어서 남성이 여성의 성적 매력을 탐한 행위 때문에 파멸 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메시지는 <위험한 정사>의 경우와 다르게 여성이 남근성을 선도한다고 할 만큼 강한 페미니즘 요소를 보여주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1980년대 말부터 페미니즘 국제관계론자들은 당시 국제사회를 여성의 시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을 본격화했고, 그 결과 에

전과 다른 많은 양의 저술과 학술 활동을 했다. 하지만, 그랜트와 뉴랜드 그리고 티크너와 같은 페미니즘 국제관계론자들은 페미니즘 관련 의제를 종래의 전쟁과 평화 관련 주제만큼 논하기를 원했지만, 비판점을 충분히 그리고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받아야 했다. 하지만, 이와 유기적인 관계는 없지만, 에로틱 스릴러 영화 장르에 등장한 여성의 남근성과 남성의 거세 공포증은 당시 국제사회의 현실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현상이었기 때문에 국제관계론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심지어 당시에 증폭된 페미니즘 현상 때문에 남성이 군인으로서 국가를 방어할 수밖에 없다는 식의 전쟁과 평화 논리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었고, 그런 이유 때문이라도 이제는 여성을 심신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는 비이성적 존재로 간주할 수 없게 되었다.

현재의 미투 운동에서 보듯이 그동안 여성은 역사적으로 무시당하고, 남성을 포함한 전체를 대표하지 못한 채, 현재도 국제사회에 의해서 고정체성과 역할이 충분히 인식되지 못한 존재로 남아있다. 또한, 국제관계가 여전히 남성을 중심으로 형성되어있는 까닭에 엉뚱하게 페미니즘이 남성을 국제관계의 통치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식의 과격성이나 지나치게 사소한 영역까지 성차별을 경계하는 소심함 또는 심지어 여성이 남성보다 우월하다는 극단적 사고방식으로 전가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페미니즘의 양상과 정도 그리고 무엇보다 문화적 체감도가 매우 다양해서 여성의 경험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도 세계적인 수준에서 젠더 불평등 현상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영화 속 여성이 자신의 성적 매력으로 남성과 성공적으로 대적하는 사례에서 보듯이 젠더 개념은 사회적으로 구성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추상적 존재로서 인간이 사는 국제사회를 운색한 것임에 틀림없다. 즉, 페미니즘은 세계적으로 서로 다른 문화의 소산이기도 한 점에서 양성 간 오해를 해소하는 방법은 국제관계론에서 인간을 무성적 존재로 간주하거나, 남성과 여성이 각자 상대방의 시각으로 사물을 판단하는 상호 배려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주요어

페미니즘 국제관계론, 에로틱 스릴러 영화, <위험한 정사>, <원초적 본능>, 젠더 불평등

<참고문헌>

- 황영주(2004).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이 보는 안보와 평화의 문제. *國際問題論叢* 15. 345-363.
- 황영주(2013). 제1장: 페미니즘 안보연구의기원, 주장 그리고 분석. *세계정치* 19.0. 21-53.
- Battistini, Robert(1992). Basic Instinct: Revisionist Hard-On, Hollywood Trash, or Feminist Hope?. *Cinefocus* 2.2 (Spring). 39.
- Conlon, James(1989). The Place of Passion: Reflections on Fatal Attraction. *Journal of Popular Film and Television* 16.4. 148-154.
- Dorsey, Arris(2018). *Origins of Sociological Theory*. New York: Scientific e-Resources.
- Enloe, Cynthia(1989). *Bananas, Beaches and Bases: Making Feminist Sense of International Politic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Faludi, Susan(1988). Fatal Distortion. *Mother Jones* 13.2. 49.
- Faludi, Susan(1992). *Backlash: The Undeclared War Against American Women*. New York: Crown.
- Holmlund, Chris(1994). Cruising for a Bruising: Hollywood's Deadly (Lesbian) Dolls. *Cinema Journal* 34.1 (Fall). 31-51.
- Jones, Adam(1996). Does Gender Make the World Go Round? Feminist Critiques of International Relations.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22.4. 405-430.
- Keohane, Robert(1998). Beyond Dichotomy: Conversations between International Relations and Feminist Theory.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42.1. 193-197.
- Klein, Melanie(1953). *Love, Hate, and Reparation*. Psycho-analytical Epitomes

2. London: Hogarth Press.
- Lyne, Adrian, dir.(1987). *Final Attraction*. Writ. James Dearden. Perf. Michael Douglas, Glenn Close, and Anne Archer. U.S.: Jaffe/Lansing Productions.
- Mayne, Judith(1990). *Woman at the Keyhole: Feminism and Women's Cinema*.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 Miller, Carol(1991). Women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 Debate in Inter-war Britain. *Gender and International Relations*. 64-82.
- Pasquariello, Nicholas(1992). Primal Urges Propel Basic Instinct. *American Cinematographer* 73.4. 44-51.
- Peterson, V. Spike, ed.(1992). *Gendered States: Feminist (Re)Visions of International Political Theory*. Boulder, CO: Lynne Rienner.
- Swerdlow, Amy(1995). Engendering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The Feminist Standpoint-Gender and International Relations by Rebecca Grant and Kathleen Newland / Gender in International Relations: Feminist Perspectives on Achieving Global Security by J. Ann Tickner (Book Review). *Journal of Women's History*, Bloomington, Ind. 7.2. 160-163.
- Tasker, Yvonne(1993). *Spectacular Bodies: Gender, Genre and the Action Cinema*. New York: Routledge.
- Tickner, J. Ann(1992). *Gender in International Relations: Feminist Perspectives on Achieving Global Securit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Tickner, J. Ann(2007). Feminism Meets International Relations: Some Methodological Issues. *Feminist Methodologies for International Relations* 41. 19-41.
- Wood, Robert E.(1993). Somebody Has to Die: Basic Instinct as White Noir. *Post Script* 12.3 (Summer). 47.
- Wood, Robin(1986). *The American Nightmare, Hollywood from Vietnam to Reaga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Zalewski, Marysia(1995). Well, What is the Feminist Perspective on Bosnia?. *International Affairs* 71.2. 339-356.

Name	Jeon, Myunggil
Belong	Dept, of Liberal Arts, Kwangju Women's University
E-mail	jeonmg@kwu.ac.kr

투고일	2020/06/04	심사일	2020/06/07
게재확정일	2020/06/09		